

# 끝모를 인간탐욕에 동강난 대간



◇석빙산에서 '새의 눈'을 얻은 취재진.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등마루가 보인다.



◇(주)한라시멘트의 석회석 채취로 송두리째 파헤쳐진 자병산.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백봉령 → 석빙산 → 삼당령

## 백두대간 속으로 <32>

봄날의 화사함을 노래하기에는, 이 즈음 우리의 봄은 우울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봄의 전조는 저 남도의 메로나 동백이 아니다. '모랫바람'이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섞인 중금속은, 기본종계 수상객은 봄바람의 정취에 마음껏 취할 수 없게 만든다.

갈수록 우리의 봄은 관념화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면에서 통조림처럼 가공된, 실상과는 거리가 먼 봄의 이미지에 동화적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실재를 대신하는 것이다. 상업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언론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경쟁적으로 봄 소식을 알리기며 '생각의 봄과 몸의 봄'을 자꾸만 떨어지게 한다. 이에 비하면 김신달의 대동강을 팔아먹기는 손전에 가까운 낭만이 된다.

그러나 고압계도, 전쟁 봄은 조용히 우릴 찾아준다. 눈점을 자고 난 나른한 휴일 아침. 햇살이 간지러워 실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아, 목련! 봄은 그렇게 번글어진다. 난폭하게 풍경을 밀어내는 버스 속에서 무심결에 바라본 길가에 활짝 쏟아지는 눈꽃처럼 마음을 터트린 개나리. 봄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온다.

아마도 많은 독자분들께서는 이번 호의 백두대간 사진을 보면서 의아하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 한편이 아리기도 했을 것이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백두대간에 기를 해 오면서 가끔씩 어떤 어두운 면을 들추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석빙산 오를 길. 아직 눈이 남아 있지만 겨울을 기억하게 만듦기 보다는 봄을 예감하게 한다.

훼손의 생채기를 봐 왔지만 굳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본심이 모자라지도 아니었고 일부러 원고개를 돌리고자 함도 아니었다. 상부적 분노와 무책임한 고발보다는, 백두대간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름다움에 전율해 보지 않고서 '악함'과 '추함'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또한 추함이거나 위선이기 쉽다.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것을 가능한 개발의 상처를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알량한 비논리감에만 극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다. 자

병산(甁山)이라는, 이름 그대로 보릿빛 병풍 같은 아름다운 산 하나가 송두리째 파헤쳐진 채 아슬아슬한 벼랑으로 바뀌어 선혈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석회석이 필요하더라도, 인간의 삶이 자연에 빚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너무 지나쳤다. 굳이 '불한포기 불명'이 하나라도 불성(佛性)이 깃들었다는 부처님의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을 함부로 파헤치면 '동티'가 난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외경을 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수가 없다.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일 뿐이다. 도를 벗어난, 자연에 대한

### 석회석 채취로 자병산은 사라지고 마주선 석빙산은 반쪽 풍광으로

인간의 파괴 행위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테러 행위와 다를 없다. 처참한 자연 환경은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의 내면을 반영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淸淨 隨心)'는 유마경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90년대 중반부터 한라시멘트에서 아급 아급 석회석을 파먹기 시작하다니, 이제는 아예 이 땅의 동백을 동강낸 현장을 처참한 심경으로 바라보며 다시 백두대간의 등마루에 선다.

자병산 왼쪽에서 생계령으로 이어지는 등마루 주위는 카르스트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기암 곳곳에 '올리네'라 불리는 울퉁 낀 곳을 보게 되는데, 석회암이 녹아서 이루어지는 침식현상의 결과다. 석회암 지역에서 용해 현상이 시작된 후, 중국의 석림(石林)처럼 송곳 모양의 지형을 거쳐 결국에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 변화를 '카르스트 윤회'라고 하는데, 올리네가 형성되는 시기는 유년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생계령 조금 못 미친 곳에서부터 어둠살이 시작된다. 저네 노을의 장엄은 황사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도 어둠이 짙어올수록 조금씩 돌아오는 별들이 내일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 이른 아침을 먹고 배낭을 꾸린다. 역시 조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리다가는 '푸른 하늘 맑은 강물'이라는 맑은 옛날 얘기 속에서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직 북쪽 기슭에는 눈이 남아 있지만 기세는 한결 누그러져 있다. 바람결도 많이 순해졌다. 참나무 우듬지 곁의 겨우살이를 지난 겨울에 비해 오히려 푸르름이 시들하다. 대부분이 참나무인 숲 사이로 드문드문 솟은 금강송의 일에도 생기가 들기 시작한다.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만은 못해도 자태가 자못 빼어나다.

생계령에서 석빙산까지의 산세는 순하다. 생계령 지나 북쪽으로 허리를 틀기 직

전과, 석빙산 못 미쳐 헬기장으로 올라서는 곳 길고는 눈밭이도 고만고만하다.

석빙산(石屏山, 1055.3m) 또한 이름 그대로 '돌 병풍' 같은 형국이다. 정상은 칼로 잘라 놓은 듯한 돌이 층층히 쌓여 있고, 북동쪽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이루고 있다. 필시 석빙산이라는 이름은 동남쪽으로 마주보고 선 자병산과 짝을 이룬 이름일 텐데, 지금은 반쪽 병풍 신세로 홀로 남아 있다.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시(詩)가 한 구절을 잃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시일 수 없듯이, 자병산의 상처는 석빙산마저도 망가뜨리고 말았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질창(醜態)에 가한 분서경유(焚書坑儒)가 아닐 수 없다.

북쪽으로 오르면 백두대간이 석빙산 정상 직전에서 서쪽으로 발길을 옮겨놓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두리봉을 향한다. 겨우내 눈 속에 묻혔던 조릿대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두리봉에서 삼당령으로 내려서는 길은 복잡한 손금처럼 이리저리 구불구불하다. 하지만 살빛 얼굴을 비치며 어서 오라 손짓하는 대간령은 어느 새 두 발을 삼당령 위에 세워 놓는다. 고갯마루 마루에 내려앉은 햇살이 따사롭다. 봄이다.

글=윤재혁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 새천년의 발원

###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천이 번갈아 최고 품질의 기쁨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용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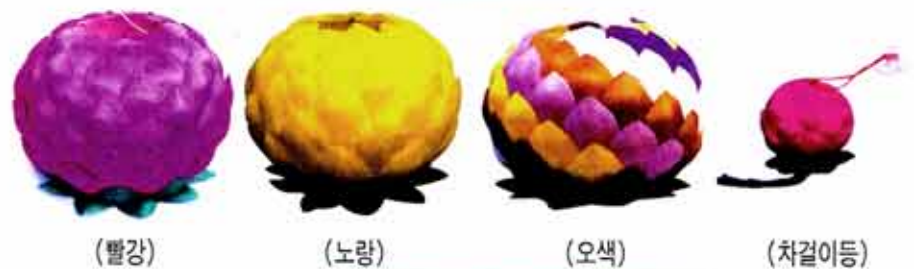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 유단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갈이등)

###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국임 제조팩터 (팩터 제122168호) / 탁각등 삼승신안 (등록 제098634호) 의정문화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